



문과대학 전임 회장 대상 금품수수 의혹 제기

지난달 30일 문과대학 학생회 박원규(사학 2014) 회장이 붙인 '양심선언' 대자보를 학생들이 보고 있다. 박 회장은 대자보를 통해 문과대학 전임 회장들이 버스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과대학 전 회장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작 버스 업체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어디가 진실일까

관련기사 ▶4면

2016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기간 : 2016. 06. 01~06. 28 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강의평가 실시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Newsmaker

교수밴드동아리 '코스모스' 보컬
전자·전파공학과 서덕영 교수



"걱정 말아요 그대"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지난 26일 국제캠퍼스(국제캠)

봄 대동제 '경희콘서트'의 폐막식에서 교수 밴드 동아리인 '코스모스'의 공연이 열렸다. '코스모스'는 학내 유일의 교수 밴드 동아리다. 폐막식 첫 순서였던 '코스모스'의 공연은 신해철의 '그대에게', 영화 '미션 임파서블 2'의 삽입곡인 Limp Bizkit의 'Take a look around', 전 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Deep Purple의 'Highway star'가 차례로 연주됐다. "모두 걱정은 덜어두고 함께 축제를 즐기자"는 흥법일(응용수학) 교수의 말로 시작된 공연은 관객의 열성적인 호응과 함께 진행됐다. '코스모스'의 보컬 서덕영(전자·전파공학) 교수를 만나봤다.

'코스모스'는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고 싶어 폐막식의 공연을 신청했다.

서 교수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연예인을 보는데 치중된 축제가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 위주의 사회 속에서 축제의 다양성도 사라져가고, 흥겨운 축제 속에서도 우울해하는 학생들이 많아 걱정이 됐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다. 서 교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가 이미 빛나고 있는 스타라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와 Deep Purple의 'Highway star'를 선곡했다"고 말했다.

매일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지만 '코스모스'에서 활동하는 교수 모두 무대공포증을 갖고 있다. 공연을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대에 서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었다. 서 교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도 아닌 무대에 서는 것이라는 말이 공감된다"며 "무대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공연을 앞두고 밤잠을 설칠 때도 있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코스모스'가 계속해서 무대에 오르는 이유는 노력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삶이 의미 있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다.

'코스모스'는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서 교수는 "동아리명인 '코스모스'도 '카오스'로부터 지어졌다"며 "우주 발생설 중 우주가 카오스(혼돈) 상태에서 코스모스(질서정연)의 상태로 된다는 대목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프라임' 후속 사업, 외대 교수 '반발'

정원 조정안 제출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대학본부가 국제캠퍼스(국제캠) 컴퓨터공학과 증원과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 신설 관련 정원조정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안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두고 해당 단과대학 교수들과 학교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다.

이번 정원조정계획은 프라임 사업 탈락 후 이어지는 후속사업이다. 미래정책원(미정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은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학주보 제1607호 (2016.05.23)> 지난달 16일 국제캠 황주호(원자력공학) 부총장은 임시학장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

서 황 부총장은 프라임사업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제안했고, 학장들의 서명을 받아 진행했다. 그러나 대학본부와 학장 간의 논의만 이뤄지고, 일반 교수들은 논의에서 소외되면서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어대학 교수들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 20명의 외국어대학(외대) 교수들은 지난달 16일 황 부총장에게 항의 방문했다. 외대 교수들은 그 자리에서 5월 3일부터 이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음을 알았다. 성기완(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5월 20일까지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교 측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 소통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장은 지난달 20일 외대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

내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단과대학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

았던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 부총장은 "외국어대학 교수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사안은 지난달 12일과 16일 양 일간 진행된 학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12일 회의에서는 공과대학과 전자 정보대학 내에서만 정원을 감축할 경우 정원조정의 의미가 적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단과대학 학장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16일 회의에서 컴퓨터 공학과 정원 증원은 공과대학과 전자정보대학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에 한해 국제캠 전체 단과대학 정원을 조정

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대학본부와 학장 간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부총장도 소통의 문 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캠 황 부총장에게 "원위치에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양해와 이해를 바란다고만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는 "24 일 외대 교수회의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총장님과의 면담 요청과 외대 교수들의 결의사항을 총장님께 서신으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대 교수들은 서신에서 "프라임사업안이 작성되는 동안 문 제시됐던 소통 부족은 물론이거나 와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공유되지 않은 작금의 상황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3면으로 이어짐

에우다이모니아, 배달될 수 없는 행복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15

이윤성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매일 아침 행복을 배달합니다." 이 광고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업체의 배달 트럭 옆면에 새겨진 문구이다. 행복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 행복을 배달한다고? 이런 광고 문구가 문제적인 것은, 단지 행복을 아침에 배달되는 빵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만이 아니다. 육신의 허기를 달래주는 빵 한 덩이가 기쁨의 원천이고 그

기쁨의 원인이 포만감일 수는 있지만, 포만감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 광고 문구가 심각하게 문제적인 이유는 행복이 빵 한 덩이로

아리스토 텔레스는 "인간이 지닌 탁월성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슬쩍 치환되면서 더 이상 행복에 대한 깊은 사유가 불가능해지기 때 문이다. 행복이 배달 가능한 빵으로 둔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그 빵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 한 돈 몇 푼이다. 행복이 이미 만 들어진 빵의 구매로 변질되는 순간, 행복에 대한 고민도 날아간다. 그러나 행복이 배달된 빵 같은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제법 많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 자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철학자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들려주는 이 야기 속의 행복은 아침에 배달되

는 빵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때 등장해야 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왜 그런가? 인간 삶의 목적은 인간이 지난 탁월성(아레테, 덕)을 가 장 잘 실현하는 것, 즉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인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 사실과 행복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마다. 그것도 엄청난 관련이 있다. 인간이 지난 탁월성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 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이번 호가 2016학년도 1학기 종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중에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khu.ac.kr/khunews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친구가 1만명을 넘었습니다
더 많은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www.facebook.com/khunews/



대학주보 65기 수습기자 사령 3면 ▶